

배포일시	2010. 5. 28.(금) 11:00 (총 8매)	보도시점	즉시
담당부서	부산지방기상청 기후과	담당자	과장 조진대
		전화번호	051-718-0423

6월 기상재해 정보(부산·울산·경남)

- 기상특성과 기상재해 -

□ 6월의 기상특성

- 6월에는 이동성고기압 영향을 받다가 점차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감. 남서기류가 유입되면서 일시적인 고온현상을 보일 때도 있음.
- 상순과 중순의 강수는 주기적으로 통과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평이한 편임.
- 하순에는 남쪽 기압골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림.

□ 6월 대표적 기상재해(평년)

○ 고온

경남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간혹 고온 현상이 나타남. 최근 5년간 6월에 30℃ 이상 고온은 합천이 71회, 밀양이 52회로 가장 많았고, 부산, 통영은 한 차례도 없었음. 33℃ 이상의 폭염은 합천 18회, 밀양 9회, 거창 8회 나타났음. 가장 높은 최고기온을 기록한 곳은 2005년 6월 24일 합천지방이 36℃를 기록함. 폭염이 예상될 시 낮 동안 가급적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것만으로도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 호우

최근의 호우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강수를 기록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추세임. 최근 5년간 6월의 일 강수는 2008년 6월 18일 마산에서 135.5mm로 가장 많이 왔으며, 1시간 최다강수는 2009년 6월 29일 마산 53mm, 부산 44mm를 기록했음. 본격적인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축대, 배수로, 하천시설 등 취약 시설물을 미리 정비하여야함.

○ 강풍

부산·울산·경남지방은 해안에 큰 도시들이 위치함. 최근 5년간 6월에 가장 강한 강풍이 불었던 때는 2008년 6월 18일 거제 19㎧, 마산 18.8㎧를 기록했었음. 해안은 강풍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부산·울산을 비롯한 경남해안의 도시들은 강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 첨부 : 로컬 기상재해 정보 1부.

※ 문의 : ☎ 051-718-0423~430, <http://www.kma.go.kr>

6월 기상재해 정보(부산·울산·경남)

- 기상특성과 기상재해 -

부 산 지 방 기 상 청
2010년 5월 28일 11시 발표

□ 6월의 기상특성

- 6월에는 이동성고기압 영향을 받다가 점차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감. 남서기류가 유입되면서 일시적인 고온현상을 보일 때도 있음.
- 상순과 중순의 강수는 주기적으로 통과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평이한 편임.
- 하순에는 남쪽 기압골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림.

□ 6월의 대표적 기상재해(평년)

○ 고온

경남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간혹 고온 현상이 나타남. 최근 5년간 6월에 30℃도 이상 고온은 합천이 71회, 밀양이 52회로 가장 많았고, 부산, 통영은 한 차례도 없었음. 33℃ 이상의 폭염은 합천 18회, 밀양 9회, 거창 8회 나타났음. 가장 높은 최고기온을 기록한 곳은 2005년 6월 24일 합천지방이 36℃를 기록함. 폭염이 예상될 시 낮 동안 가급적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것만으로도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 호우

최근의 호우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강수를 기록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추세임. 최근 5년간 6월의 일 강수는 2008년 6월 18일 마산에서 135.5mm로 가장 많이 왔으며, 1시간 최다강수는 2009년 6월 29일 마산 53mm, 부산 44mm를 기록했음. 본격적인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축대, 배수로, 하천시설 등 취약 시설물을 미리 정비하여야함.

○ 강풍

부산·울산·경남지방은 해안에 큰 도시들이 위치함. 최근 5년간 6월에 가장 강한 강풍이 불었던 때는 2008년 6월 18일 거제 19m/s, 마산 18.8m/s를 기록했었음. 해안은 강풍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부산·울산을 비롯한 경남해안의 도시들은 강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 붙임 : 6월의 지역별 기상자료(평년) 및 재해 자료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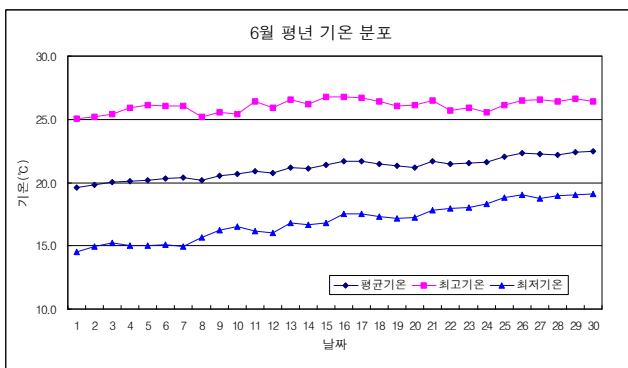
6월의 지역별 기상자료(평년) 및 재해 자료

부산지방기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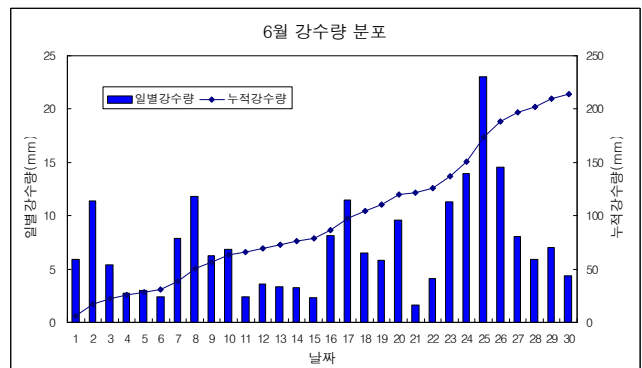
1. 6월 지역별 기온 및 강수량(평년)

단위 : 기온 °C, 강수량 mm

지 점	부산	울산	마산	통영	진주	거창	합천	밀양	산청	거제	남해
평균기온	20.5	21.1	21.6	20.6	21.5	20.6	21.7	21.6	21.3	20.8	21.3
최고기온	24.0	25.7	25.7	24.5	26.8	26.7	27.4	27.4	27.3	25.2	26.1
최저기온	17.7	17.1	18.4	17.6	16.9	15.1	16.6	16.6	16.3	16.8	17.3
강 수 량	222.5	185.4	235.7	210.5	217.7	180.3	169.9	199.8	191.2	268.8	27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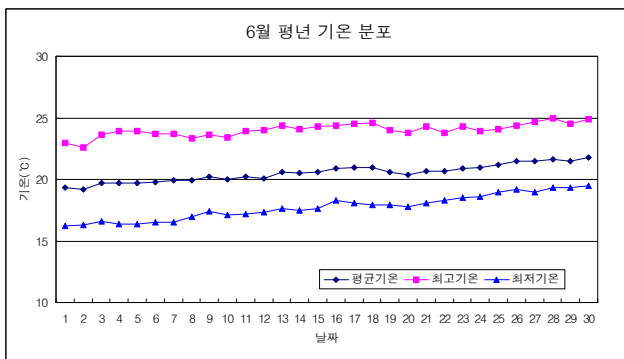
부산·울산·경남 6월 일별 평년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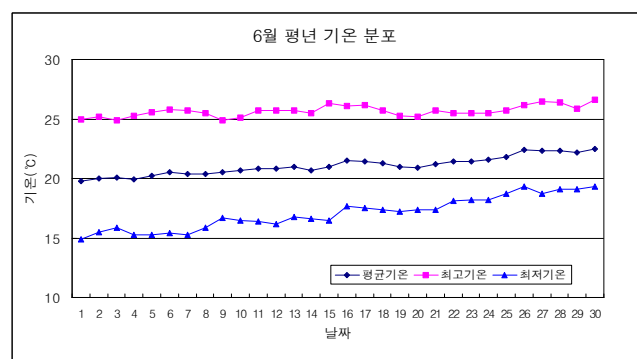
부산·울산·경남 6월 평년 강수량

2. 부산·울산·경남 주요도시 평년기온(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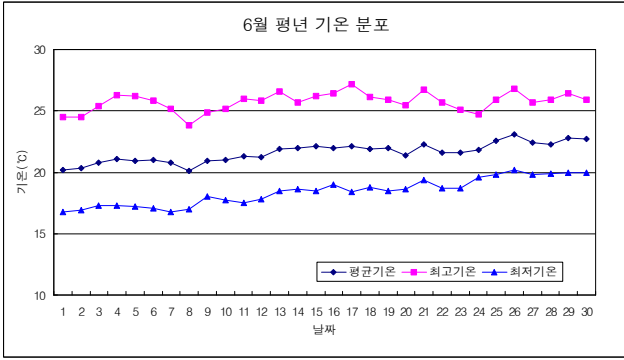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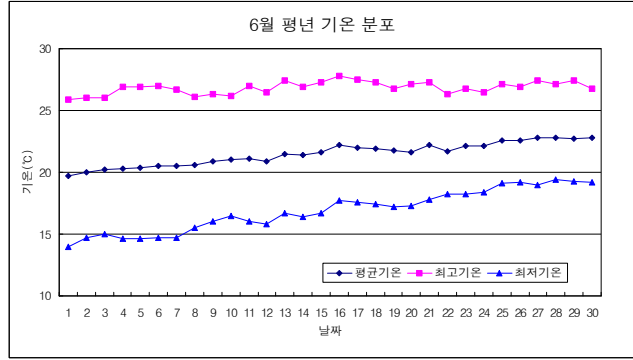
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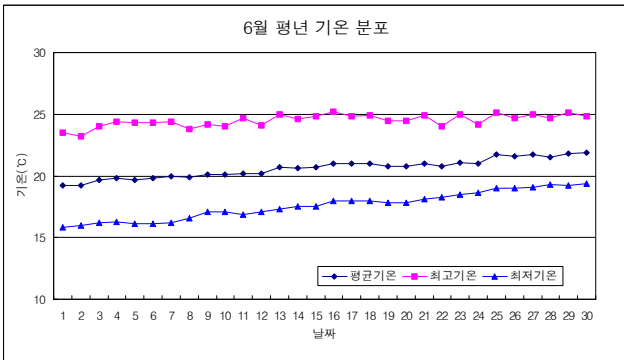
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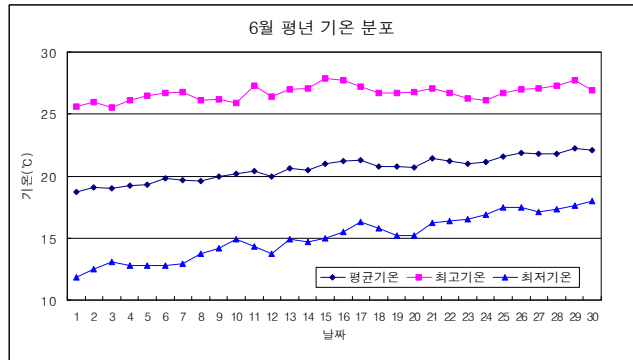
진주



통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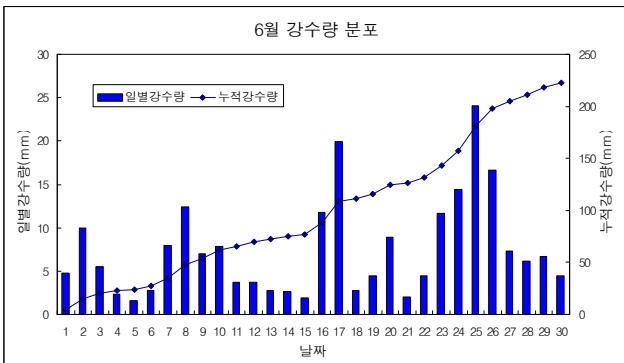


거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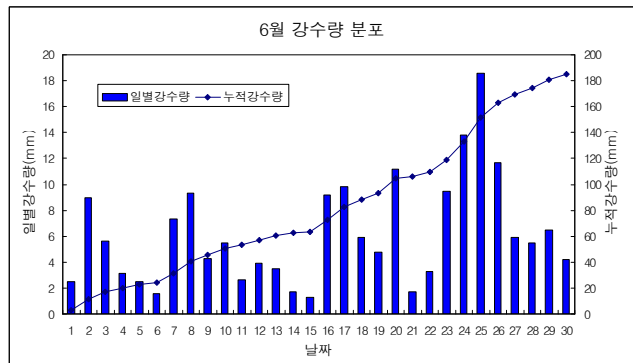


3. 부산·울산·경남 주요도시 평년 강수량(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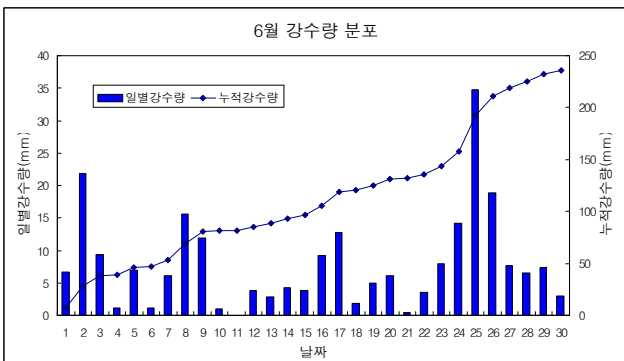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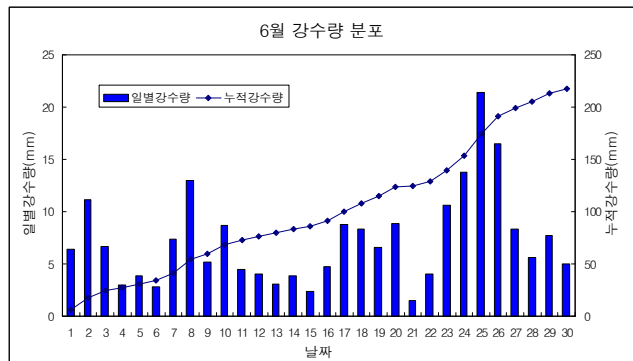
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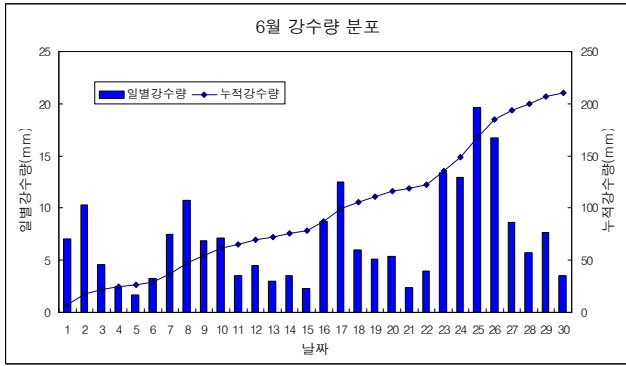
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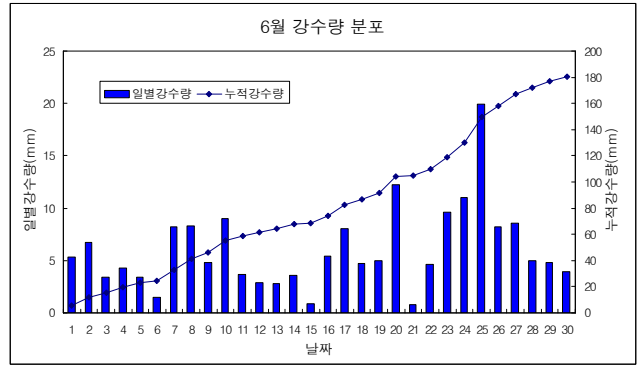
진주



통영



거창



4. 부산·울산·경남 주요도시 순별 평년값

평균기온

단위 : °C

주요도시	경상남도	부 산	울 산	마 산	진 주	통 영	거창
상순	20.2	19.7	20.3	20.7	20.4	19.8	19.5
중순	21.2	20.6	21.0	21.8	21.6	20.7	20.7
하순	22.0	21.3	21.9	22.3	22.4	21.4	21.6
전체	21.1	20.5	21.1	21.6	21.5	20.6	20.6

최저기온

단위 : °C

주요도시	경상남도	부 산	울 산	마 산	진 주	통 영	거창
상순	15.1	16.6	15.7	17.2	15.0	16.4	13.2
중순	16.8	17.7	17.0	18.4	16.9	17.6	15.1
하순	18.5	18.9	18.6	19.6	18.8	18.9	17.1
전체	16.8	17.7	17.1	18.4	16.9	17.6	15.1

최고기온

단위 : °C

주요도시	경상남도	부 산	울 산	마 산	진 주	통 영	거창
상순	25.6	23.5	25.3	25.2	26.4	24.0	26.2
중순	26.4	24.2	25.8	26.2	27.2	24.7	27.1
하순	26.3	24.4	26.0	25.9	27.0	24.7	26.9
전체	26.1	24.0	25.7	25.8	26.9	24.5	26.7

강수량

단위 : mm

주요도시	경상남도	부 산	울 산	마 산	진 주	통 영	거창
상순	61.6	62.2	50.6	81.6	68.1	61.6	54.8
중순	57.2	62.5	54.1	49.8	55.2	54.5	49.1
하순	92.9	97.8	80.7	104.3	94.4	94.5	76.4
전체	211.7	222.5	185.4	235.7	217.7	210.6	180.3

(평년기간 : 1971 ~ 2000년)

5. 기상재해 사례

○ 고온(2005년 6월 24일)

2005년 6월 24일 전후로 일본열도 남쪽에 장마전선이 위치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고온다습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경상도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낮최고기온이 35℃ 이상, 열지수 32℃ 이상을 기록하는 폭염현상을 나타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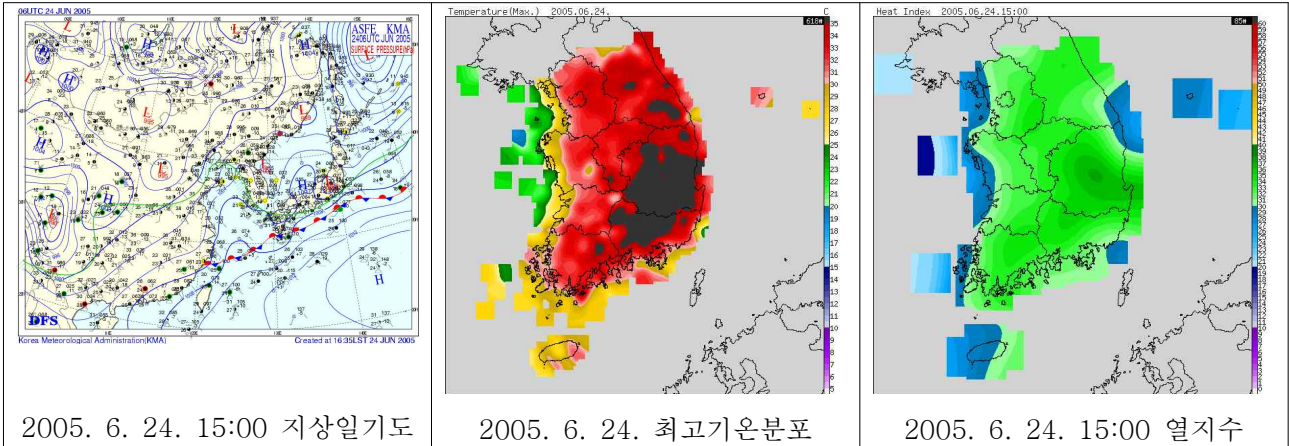


표1. 6월 지점별 최고기온 극값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부산	1929.06.18	33.4	1944.06.22	33.1	1929.06.03	31.9	1958.06.25	31.3	1958.06.24	31.2
울산	2005.06.25	35.5	1958.06.26	35.2	2009.06.26	34.2	1987.06.05	34	1987.06.04	34
마산	2005.06.24	33.2	2005.06.23	32.7	2009.06.24	32.6	1999.06.13	32.2	2000.06.06	32.1
통영	2002.06.06	30.8	1987.06.26	30.6	1984.06.12	30.4	2002.06.05	29.8	1999.06.13	29.7
진주	2005.06.24	35.1	2000.06.19	34.9	2000.06.06	34.7	1997.06.17	34.7	2005.06.23	34.6
거창	2005.06.24	35.5	1997.06.17	35.1	2009.06.26	34.4	1994.06.24	34.2	2005.06.22	34
합천	2005.06.24	36	2005.06.25	35.2	2005.06.22	35.2	1997.06.17	35.2	2009.06.24	34.9
밀양	2000.06.19	35.7	2009.06.24	35.3	2005.06.24	35.2	2000.06.21	35.1	2005.06.23	35
산청	1999.06.13	35.1	1987.06.04	35	2000.06.19	34.9	2005.06.24	34.5	1999.06.14	34.5
거제	2005.06.24	33.5	2005.06.23	32.9	1988.06.14	31.9	2002.06.07	31.7	1997.06.17	31.7
남해	1973.06.23	33.5	1982.06.11	32.9	2000.06.15	32.8	2005.06.24	32.7	2009.06.24	32.6

5세 어린이 차량 안에서 질식사

폭염속 어린이집 승합차에 종일 방치

폭염 속 5살 배기 어린이가 어린이집 차량 안에서 하루종일 방치돼 질식사한 여초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오후 4시경 경남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D 어린이집 승합차 안에서 이 어린이집 원생 전모(5·경남 진주시 신안동)군이 숨져 있는 것을 인솔

교사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군은 이날 오전 8시5분경 지수면 압사리 할머니집에서 운전자 남모(45)씨가 운전하는 승합차에 탑승해 8시50분경 어린이집에 도착했으나 잠이 드는 바람에 내리지 못했다.

경찰은 전군이 승합차의 출입문 근

처까지 걸어 나왔으나 이날 30도가 넘는 폭염속 하루종일 방치되면서 더위에 지쳐 승합차의 문을 열지 못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전군이 하루종일 보이지 않았는데도 확인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날 수업을 마치고 어린이들을 귀가시키기 위해 인솔교사가 자동차문을 열어본 뒤에서야 전군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등 원생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차량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진주=김인수기자 iskim@kookje.co.kr**

○ 호우(2009년 6월 29일)

장마전선이 북상하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남해안 일부지방에 시간당 40~50mm/h의 강한 비가 내렸음. 2006년 6월 30일에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남해안지방에 호우가 있었으며, 부산은 시간당 49mm/h의 비가 내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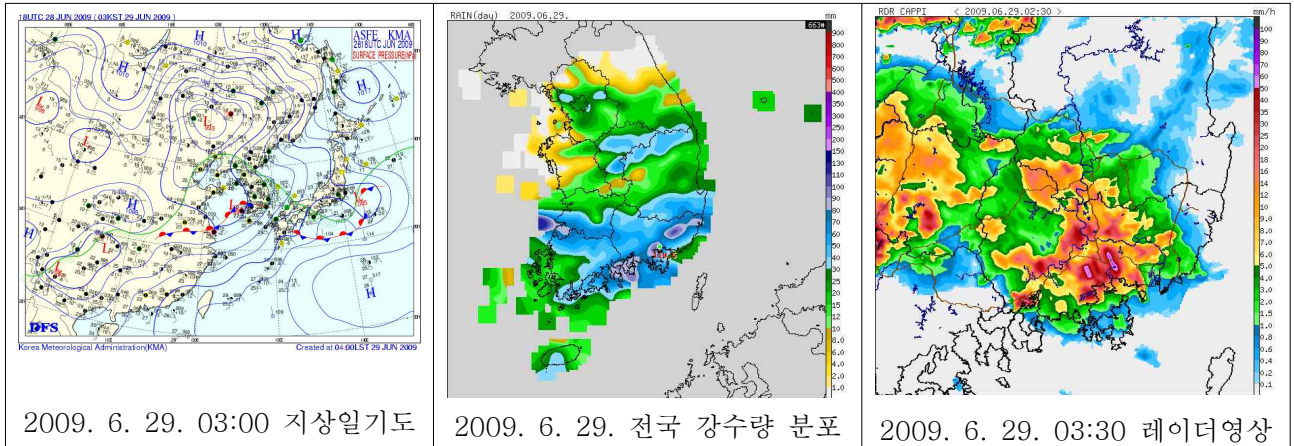


표2. 6월 지점별 1시간 최다강수량 극값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부산	1971.06.26	50.1	2006.06.30	49	1978.06.17	46.2	1997.06.25	44.8	1963.06.24	42.8
울산	2009.06.29	44	1997.06.26	36	1960.06.26	32.2	1986.06.25	30.2	1943.06.14	28.7
마산	2009.06.29	53	1986.06.25	43.5	2009.06.22	31	1991.06.09	30.9	1995.06.03	29.3
통영	1985.06.24	39	1996.06.25	36	1998.06.26	32.4	1991.06.09	30	2009.06.22	29.5
진주	2006.06.10	39.5	1991.06.09	33.5	1971.06.26	32.7	2008.06.05	29.5	1980.06.08	27
거창	2000.06.11	51.5	1979.06.25	31	1986.06.25	29	1997.06.26	28.5	1975.06.10	26.5
합천	2002.06.02	45	1986.06.25	30.5	2001.06.24	29.5	1982.06.24	28.5	2009.06.22	26.5
밀양	1986.06.25	50	1997.06.26	47	2001.06.24	38.5	1978.06.18	30	1987.06.07	26.5
산청	2006.06.10	32	2000.06.19	30.5	2001.06.24	27	1978.06.20	26	2004.06.20	25.5
거제	1995.06.03	47	1985.06.24	42.5	1991.06.09	42	2003.06.19	39.5	1984.06.26	35.5
남해	1997.06.26	60.5	2001.06.24	56.5	1978.06.18	41	1995.06.03	38.5	1974.06.17	37.5



온천천, 깜짝폭우에 '재난천'

산책 나온 시민 고립·차 침수로 긴급탈출
위험수위에도 농작 통제한, 피해 커위

30일 새벽 광역 폭우로 온천천에 큰 물이 쏟아져 시민이 고립되고 차량이 물에 잠기는 아찔한 장면이 부산 온천천에서 속출했다. 그러나 안전천 관리가 부산시 재난대응 시스템과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중대 사고로 이어질 뻔한 대참사가 발생했다. 부산시 재난대응 시스템과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중대 사고로 이어질 뻔한 대참사가 발생했다. 부산시 재난대응 시스템과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중대 사고로 이어질 뻔한 대참사가 발생했다.

부으로 나와 인명 피해를 없앴으나 차량은 천문까지 물에 잠겼다. 차는 건 안전천이 도로를 이용해 끌어올렸고 길 가는 차량이 물에 잠겼다. 그러나 안전천이 시 재난대의 시스템과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안전천 관리사수가 차를 견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물에 잠긴 차량이 마르크를 사용해 대피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수심이 몇 m 이상일 경우 통행을 제한하고 위험물이 미끄러져서 서는 등의 기본 예방조치 없이 위험물을 운반한 차량이 도로를 막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재난대응센터는 관계자를 통해 안전천 연안과 세검정 교차로는 호우 주의보가 발령된 04:30분에 일단 04:30분에 통행을 제한하는 등 미리 대비했으나 수심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30일 새벽 부산지역에 내린 폭우로 온천천 제방을 넘어 온천천에 물이 넘어서 시민들이 이용을 못해 불편을 겪었다. 이수정 기자